



환구단의 석고와 황궁우(서울시 중구)

찬연해 …… 관청은 우뚝우뚝 서로 맞서서, 못 별이 북두성에 읊하고 있는
 듯”¹⁰ 한양의 도시경관이 중건되었다. 육조거리 좌우의 관아는 경복궁을 중
 심으로 대로를 이루고, 광화문 너머로 근정전과 궁궐 전각들이 백악의 능
 선을 배경으로 중첩되어 있다.

한편 새로운 황궁으로 조성된 경운궁은 경복궁이나, 창덕궁과 경희궁에
 견주어 입지조건이 좋지 않고 경역의 규모도 넉넉하지 않았다. 그러나 황
 궁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하여 제국의 상징적인 통치시설인 환구단을
 신축하게 된다.¹¹ 비교적 높은 지대여서 도성 안에서 시각적으로 돋보이는
 장소였다. 환구단은 광무 원년인 1897년 10월 2일에 착공하여, 불과 10일